

# 오늘의 한국 대학에 관한 수상(隨想)

최연홍 서울시립대 도시행정대학원 교수

## 1. 서 언

1967년 연세대에서 석사학위를 얻고 미국으로의 유학, 1996년 서울시립대 객원교수, 그리고 1999년 전임교수가 되어 바라보고 있는 한국의 대학에 관해 나대로의 생각들을 펼쳐 보이며 한다. 한국의 대학도 개혁의 소용돌이 속에 있으며 세계화, 정보화 물결 속에서 예외일 수 없다. 정부와 기업이 변하고 있지만 궁극적으로 대학이 변하지 않으면 정부와 기업, 사회의 변화는 오직 피상적이고 형식적이며 실패할 것이다. 대학은 사회의 정신적이고 문화적인 지도자를 양성하는 곳이다. 지식의 창고로서의 저장능력을 기초로 새로운 지식을 창출하는 곳이다. 한 나라의 세계시장에서의 경쟁력은 바로 대학의 경쟁력에 달려있다. 그러면 오늘 한국의 대학은 세계의 대학들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확보하고 있는가? 대학별로, 분야별로 답은 만들어질 수 있지만 일반적으로 한국 대학은 세계의 저명대학과의 경쟁에서 우위를 점유하고 있지는 못하다. 세계적 학술지에 발표된 논문수로나 세계의 지성을 이끄는 대학이나 학자, 학파가 아직 한국에 자리잡지 못하고 있기 때문이다. 한국 안에서의 대학의 위상은 높다. 한국인들의 교육열이 대학과 교수들의 품위를 높게 평가하고 있다. 그러므로 한국의 대학의 잠재

력은 폭발할 것이고 세계의 대학과 경쟁성을 보여줄 것이다. 한국의 경제 수준만큼 한국 대학의 수준이 정해졌다면 이미 어느 정도 경쟁력을 갖춘 것으로 판단되기 때문이다.

## 2. 한국 대학의 아름다움

한국의 대학에서는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아름답게 자리하고 있다. '60년대 나의 스승과 아직도 아름다운 관계를 갖고 있는 행복감을 돈으로 환산할 수 없는 것이다. 스승은 스승의 도리를 다하고, 제자는 제자의 도리를 다하는 한국의 대학은 사제시간의 아름다움이 결핍된 미국에 수출하고 싶은 것이다. 사제시간은 인간적인 관계일 뿐 아니라 학문적인 관계를 포함한다. 스승의 학문적 자세를 전수하여 학문의 발전을 이루는 것이 사제의 관계다. '90년대 후반 내 나라에 돌아와 사제의 관계를 확인해서 행복하다. 선비정신이 한국 사회를 지켜왔다고 말한다. 선비정신 안에는 예(禮), 악(樂), 의(義)가 들어 있다. 불의에 항거하며 정의를 지키며, 곡학아세(曲學阿世)를 거부한다. 인간의 양심을 지키며 학문하는 품위를 지키는 정신이 한국 대학의 중요한 기초가 되어 있지만

학문적인 전수, 발전으로는 크게 영향을 미치지 못한 것으로 평가되고 있다.

스승의 그림자도 밟지 못한다는 유교적 사상의 역사와 전통은 스승에 반론을 제기하는 제자의 존재를 거부함으로 나타난다. 사제의 아름다운 관계가 행여 학문적인 발전을 저해한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있다. 그러나 제자는 스승의 학문적 이론을 새로운 시대의 자료로 실험해야 하며 그 이론을 더 발전시켜야 한다. 실험실에서는 과학·기술의 발전이 나올 수밖에 없다. 강의실에는 끝없는 토론이 있어야 한다. 청출어람(靑出於藍)이란 말이 있다. 제자가 스승을 능가해야 제자다운 도리를 지키는 것이다. 스승은 그런 제자를 자랑스럽게 생각해야 한다. 대학의 교실이 지금도 강의실로 불리고 있으며, 교수들은 강의하고 학생들은 청강(聽講)만 한다. 어찌 그런 강의실이 오늘의 대학에 존재할 수 있겠는가? 교수와 학생들은 서로의 인격을 존중하며 세계 석학의 이론과 주장을 논리적으로 비평할 수 있어야 대학다워진다. 기존의 이론과 주장을 수정하면서 학문은 발전하는 것이 아닌가?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너무 수직적이며 평면적이지 못한 것이 아직도 한국 대학의 문화가 아닌가 생각한다. 물론 대학 총장의 권위에 도전하는 대학생들은 있지만 교수에게 학문적 도전을 하는 대학생들은 아직 없는 것 같다. 스승과 제자의 관계가 존경과 사랑을 유지하되 학문적 비판능력을 갖추는 것이 사제의 새로운 관계로 정립되어야 할 것이다. 알게, 모르게 한국의 대학은 '60년대와 비교해 괄목할 만한 발전을 성취했다고 본다. 그러나 가야할 길은 멀게 느껴진다.

### 3. 학문적 분업

한국 대학은 학과중심으로 움직이고 있다. 교양과목

이외엔 모두 학과교수의 강의를 듣고 졸업한다. 시간강사가 채용되기는 하지만 학과교수 이외의 다른 교수의 강의는 제한되어 있다. 대학 4년을 학과라는 한정된 세계에 갇혀 살게 된다. 뿐만 아니라 학과와 학과사이의 교류가 크게 결핍되어 있다. 학과라는 벽을 허물면 대학이 나온다. 예를 들면 행정학과라는 벽을 허물면 사회과학대학이 나온다. 행정학 전공 이수과목을 제한하고 사회과학대학 안의 과목을 더 선택하게 만들면 어떨까? 경영대학원과 행정대학원은 서로 벽을 허물어 대학원생들의 폭넓은 교육훈련의 장을 만들면 어떨까? 정부와 기업의 관계, 조직, 인사, 회계 과목들은 공통의 분모가 된다. 그러나 그 둘 사이의 교류는 없는 것 같다. 이는 자원의 활용이 그만큼 제한되어 있다는 뜻이 된다. 기업이든 정부든 조직이 아닌가? 모든 사람들이 목표를 가지고 일하지 않는가?

학과는 밀폐된 공간으로 보인다. 그리고 그 공간은 원로교수들에 의해 움직이고 있는 듯 하다. 젊은 교수들은 장유유서(長幼有序)에 의해 입을 열지 않는다. 조용히 원로의 견해를 듣고 있다. 그런 학과의 문화 속에서 젊은 교수들은 나이를 먹고 원로교수가 될 것이며, 그런 문화는 이어질 것이다. 원로교수의 위엄이 지켜질 만한 가치가 있으면 다행이다. 교수와 학생사이의 관계가 원로교수와 젊은 교수사이에 존재한다. 동료의 개념이 아예 없는 것이 아닌지 모르겠다.

많은 사람들이 열린 사회, 열린 대학을 구가하고 있다. 그러나 대학이 얼마나 열려져 있는가 스스로 답을 구해야 할 것이다. 오히려 얼마나 경직된 사회인가를 물어야 할 것이다. 학문 세계는 점점 깊어지기도 하지만 점점 커지기도 한다. 예를 들면, 환경에 관한 학문 세계는 자연과학, 사회과학, 인문학이 모이는 곳이다. 그러나 환경공학, 토목공학, 행정학, 정책학, 철학, 과학철학은 서로 분리해 존재한다. 분리해 존재하는 만큼 협력체제를 유지해야 한다. 공동과목, 공동교육, 팀강의(Team Teaching)가

바람직하다. 학문의 협력은 서서히 이루어지고 있다. 서울시립대 도시행정대학원(2000년부터 도시과학대학원)의 환경정책학과는 공학, 정책학, 인문학의 교수진을 최대한 활용하고 있으며 공동 세미나를 열고 있다. 수자원 정책, 폐기물 정책, 대기 정책은 공동의 노력으로 잘 만들어지게 된다.

#### 4. 대학의 품질통제(Quality Control)

한국 대학은 지금까지 교육부에 의해 통제되어 왔고 지금도 그렇다. 관료들이 대학을 통제한다는 것은 언어도단이다. 미국의 경우 대학은 교수들에 의해 통제되어 왔다. 대학은 대학별로, 학과는 학과별로 교수평가단에 의해 평가되고 있다. 대학이 자질이 부족한 교수를 채용하거나 시설·설비(도서관, 컴퓨터 센터,…)를 갖추지 않고 학생들을 가르치는 경우에 교수평가단은 그 대학을 대학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미국에는 특수대학원이라는 말이 아예 없다. 일반대학원이나 특수대학원이나 모두 대학원이다. 특수대학원을 일반대학원보다 하위개념으로 만들려면 아예 만들지 않는 것이 좋을 것이다. 교육부의 관료들이 품질을 관리하기보다는 그 분야의 교수들이 평가의 기준을 만들어 엄격하게 적용해야 품질이 보증된다.

미국의 행정대학원은 행정대학원협의회(NASPAA)라는 단체가 품질보증을 위한 평가를 주기적으로 시행해 협의회지에 발표한다. 이따금 졸업장을 파는 대학이 있을 수 있으나 품질보증이 되지 않은 대학의 졸업장은 일전의 가치도 없다.

미국의 교육부는 초·중·고등학교 교육조건의 개선, 대학의 연구비조성 행정을 맡는 조그만 정부조직이다. 한국의 교육부는 예산 면에서 국방부 다음의 큰 조직이다. 큰 조직이 조직의 역할을 잘 담당하고 있는지, 교육의 개

혁을 정부가 주도할 수밖에 없는 한국적 여건을 평가해야 할 것이다.

#### 5. 결 론

한국 대학은 자유를 만끽하며 책임을 다하는 전통을 갖고 있다. 교수는 한 학기 동안 자신이 가르치고 싶은 과목을 자신이 선택한 책과 참고서로 가르친다. 이런 대학의 자율성은 지켜져야 한다. 물론 자유에 해당하는 책임을 느끼고 살아야만 한다. 그러나 자유와 책임을 담당할 수 없는 교수가 있다면 그런 교수들은 숨쉴 수 없는 대학이어야 한다.

선비정신은 스스로 자유와 책임을 정의하게 했다. 타인이 정의한 자유와 책임이라면 대학의 자유는 처음부터 없는 것이다. 21세기의 대학에게는 끝없는 자유와 책임을 갖는 대학인들이 있어야 한다. 교수와 학생들은 스스로 그들의 책임과 자유를 물어야한다. 궁극적으로 한국이라는 나라가 세계 시장에서의 경쟁력 확보, 한국이라는 사회의 인간성 확보를 위한 책임과 자유를 찾아야 한다. 히틀러도 침범하지 않은 독일의 대학은 그럴만한 대학의 품위가 있었기 때문이다.

교육부가 대학을 통제하던 시대, 왜 그럴 수밖에 없었나를 진단하게 된다면 역설적으로 대학의 자유가 21세기 우리의 화두가 될 것이다. 정부주도의 한국경제가 결국 파멸한 것을 눈여겨보아야 한다. 지금까지 정부주도의 대학교육이 괜찮았는지 모른다. 그러나 지금부터 정부주도의 교육은 긍정적이기 보다 부정적인 것으로 나타날 것이다. 대학 스스로 세계 대학과의 경쟁에서 살아 남을 수 있도록 노력해야 한다.

중국의 고전 『대학』은 기원전 4세기 쟡셴이 쓴 책이다. 한마디로 위대한 배움(Great Learning)이다. 진·한의 유학자들이 대학을 발전시켰고 송(宋)대의 주시를 거

쳐 이지(의식의 책)로부터 분리, 독립시켰다. 주시는 '대학'을 신사가 되는 배움의 책이라 했다. 고전적인 의미의 대학은 이제 21세기에 그 빛을 잃고, 잃겠지만 스스로 경작하고 스스로 통제하는 방법을 가르쳐주고 있다. 그리고 "세 가지 원칙", "여덟 개의 품목"을 청하고 있다.

세 원칙은 본래의 선을 전신시켜 나가는 것(明明德), 타인들이 그들의 선을 행하게 하는 것(新民), 완성될 때까지 중단하지 않는 것이다(止于至善).

여덟 가지 품목은 사물의 조사, 탐구(格物), 지식의 획득, 함양(至知), 성실성(誠意), 양심이 가르치는 대로 바르게 사는 것(正心), 스스로 탐구하는 것(修身), 가족의 교육(齊家), 국가의 경영(治國), 세계의 경영(平天下)이다.

기원전 4세기에 대학은 개인, 가족, 나라, 세계를 연결하고 있어 감탄할 수밖에 없다.

21세기가 오면 대학은 민족의 대학을 넘어서 세계의 대학으로 성장할 수밖에 없다. 대학은 우물안 개구리를

키우는 처소가 아니라 이 세계의 문제들, 지구환경, 경제 문제들을 풀어가며 인류애, 평화, 공존의 발전을 찾는 세계의 대학으로 변해야 할 것이다. 이미 사이버(Cyber) 대학이 들어와 있다. 세계를 품안에 안을 대학을 대상으로 있다. **▶▶▶**

---

#### 최연홍

연세대를 졸업하고 미국 인디애나대에서 수학했다. 미국 위스콘신대, 버지니아대, 미시시피대, 워싱턴대 교수를 역임했으며 미국의 국방장관 실에서도 재직할 경험이 있다. 현재는 서울시립대 도시행정대학원 교수로 재직중이다. 저서로는 『Introduction to Public Administration, Readings in Public and Environmental Affairs』, 『미국을 다시 본다』, 『미트니에서 클린턴까지』, 『삼이 사라지고 있다』, 『헬렌가에서 백악관까지』 외에 다수가 있다.